

# 완도, 초미세먼지 최저 · 해양치유 최적

### 초미세먼지, 전남도에서 가장 최저

### 신지명사십리 해변의 산소이온 발생량 최고



완도군의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전남에서 최저로 나타나 해양치유 산업의 최적지임을 증명하고 있다.

대기질 검색 웹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 따르면 2월부터 9월까지 전남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완도군이 17.0μg/㎥로 가장 낮게 발생한 곳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올해는 3월에 가장 심하게 발생했다. 지난 3월, 전남 지역에서 가장 심하게 발생한 곳은 45μg/㎥였으나 완도는 24μg/㎥뿐이었다.

특히 완도군은 초미세먼지가 심하게 발생한 기간인 2월에 23μg/㎥, 3월에 24μg/㎥, 4월에는 14μg/㎥로 도내에서 가장 낮게 발생했다. 완도군이 초미세먼지 발생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군민 건강과 직결돼 있을뿐더러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치유산업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해양치유자원을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산업이며 공기는 해양기후치유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치유자원이다.

특히 해변 노르딕워킹과 해변 필라테스, 해변 요가는 신지명사십리 해변에서 해풍과 에어로졸을 흡입하며 치유하는 대표적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으로 공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완도군은 2018년부터 신지명사십리 해변에서 봄, 여름, 가을 계절에 맞는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793명이 참여했다.

신지명사십리 해변은 산소이온 발생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원도=김광수 기자



## 진도군, 무선 행정방송시스템 구축

진도군이 각종 재난·재해 발생 상황과 군정 정보를 신속하고 빠짐없이 전달하기 위해 전 마을 전세대에 마을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을 행정방송시스템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67개 마을(70%)을 구축했으며,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선정되어 올해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나머지 75개 마을(30%)을 구축했다.

특히 진도군은 타 시군과 차별화된 가정에서 마을행정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집안에 스피커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7개 읍면 240여개 전 마을

에 구축을 완료했다. 또 진도군 마을 행정방송시스템은 무선 방송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장님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방송이 가능하다.

그동안 마을과 떨어진 난정지역 해소와 노령화, 주택 방음으로 외부 방송청취가 곤란했지만 가정에서 방송을 청취할 수 있고, 외출할 경우 녹음된 방송을 다시 들을 수도 있다.

진도군정 행정과 박수길 과장은 "안방에 스피커를 설치해 행정방송과 재난방송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며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제4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호평

지난 10월 26일부터 3일까지 9일간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치러진 '제4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총 9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된 갈대축제는 흥겨운 축제의 장르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 개막축하공연은 미스트롯 5인방(송가인, 정미애, 홍자, 정다경, 김소유)이 출연해 현장의 흥을 북돋았다. 또한 시월의 마지막 밤 낭만콘서트, 토요일악회, 리바이벌 전국노래자랑 등 다양한 공연들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으며 이후 시작된 레이저 쇼는 가을밤을 수놓는 환상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추억을 선사했다.

평일 관광객과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4일간 선보인 야집야제 청춘콘서트는 그동안 키워왔던 노래실력을 뽐내며 경쟁했고,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과 함께 소속 읍면을 응원하는 열띤 응원전이 열려 지역민이 화합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

주말 행사로 진행한 장어잡기 체험은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들의 활발한 참여로 관심을 모았고 상시적으로 진행된 귀·감 동물농장, 갈대밭 연날리기, 내가 갈대 다

트장인, 추억의 오락실 등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즐길거리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또 자전거 도로를 누비며 주변 경관을 마음껏 구경해 볼 수 있는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자전거 체험)과 축제장 내 국화꽃 및 코스모스 밭은 방문객들에게 힐링과 낭만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이곳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핸드폰 갈대밭 플래로이드' 체험에서 즉석 인화하여 증명해냈다.

남도 맛의 1번지 강진의 명성에 어울리는 엄선된 먹거리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맛의 1번지 맛보기 체험'에서 강진 생태어 음식들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을 기념하여 한우를 무료로 시식하는 등 강진의 대표 먹거리들을 맛볼 수 있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갈대축제가 강진의 맛과 멋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 장풍어 등 1,131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강진만 생태공원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가 있는 축제인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전국 관광객들에게 강진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축제도 빈틈없이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무안군, 소비자와의 팜파티 개최



무안군은 지난 2일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팜파티를 일로 읍에 소재한 토브아카데미에서 개최했다.

팜파티란 농장을 의미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음식, 공연, 체험, 농산물 정보 제공 및 판매 등을 결합한 새로운 농촌마케팅 모델이다.

'일로에서 만난 팜'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배불떡(대포 손수진) 이외에도 토브식품(대표 김상기), 한사랑농원(대표 한영만)이 참여하여, 온라인 및 직거래 고객 120명을 대상으로 무안군의 우수한 농산물(모시송편, 연근두부, 고구마 등)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 증진으로 직거래를 확대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악·버스킹·성악 공연과 함께 떡메치기, 피자 만들기, 보물찾기, 전래놀이, 석고방

한제 만들기, SNS 이벤트, 경품 추첨 등 다양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무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팜파티는 농촌의 문화체험과 농산물 생산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무안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9일에는 현경면에 위치한 '해양농장'에서 가을걷이 감사 팜파티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 신안군, '어업용 포크레인 임차' 사용

신안군은 각종 자연재해로부터의 어업인 재산 보호와 어촌현실에 맞는 어업용 포크레인으로 대체하는 임차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정부 지원으로 고정식 어업용 인양기 설치를 지원했던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인 포크레인 렌탈(임차)로서, 장비를 일정 기간 동안 안전 정기점검·수리를 받으며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안군은 지금까지 163대의 어업용 인양기를 지역별 선착장마다 지원하였으나 설치 후에는 '섬'이라는 특수 지리적 교통여건 때문에 고장 시 적기에 정비받지 못하여 어업인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왔다.

해수부의 등 사업 지침상 기존 설치지원 품목이 고정식 어업용 인양기로만 한정되어 어업활동

반경이 제한적인 단점이 있었으며, 육지에 비하여 노동력 한계 실에 맞는 어업용 포크레인으로 대체하는 임차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업인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올해 비금 수치지선착장 등 3개소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이선과 수산물 인양작업은 물론, 해양 환경정화 사업 및 태풍 등 재해 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응급복구 등에도 사용할 계획이어서 1석 3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포크레인 임차 지원을 통하여 '섬' 지역의 특수적 작업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진 사례로서, 국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더욱 많은 어촌계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